

# 古代和公司

뉴스레터 News Letter 268호 주후 2023년 4월 11일(화)

God Granted What Was Requested



### TODAY'S PRAYER 위로부터 부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모든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 1/ 살아계신 주 앞에 사랑의교회가 죽은 자 같이 마음 다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20+1' 봄 글로벌 특새에 걸맞은 새 부흥이 일어나 세상을 진동하게 하옵소서.
- 🏒 세워주신 강사님(케빈 브라운 박사, 김한요 목사)과 담임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영가족들이 성령의 신음에 귀가 트이고 예배의 영광에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 3 사랑글로벌아카데미 통해 길러내실 인재들이 섬기는 한국교회와 글로벌 파트너들을 하감하여 주사, 만연한 분열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해 주옵소서.

"Dr. John Oh is my dearest friend in the whole world." "Division kills vision."

# 특새 강단 아카이브 🦠

"Don't touch me. This is a holy hand." "그 때 오 목사님을 몰랐어야 했는데…"



## 주님의 마지막 부탁 (요한복음 13:34-35)

리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요한복음 13~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에

요한복음 13~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사랑'과 '연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성도와의 연합은 스스로 경험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삼위일체가 하나 됨의 모델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기도 (사도행전 4:23-31)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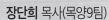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핍박과 반대 속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 우리의 상황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둘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셋째,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닌 세상을 진동케 하는 지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여, 사랑의교회의 무릎을 꿇리소서.

# 신임교역자 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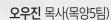
#### 유형민 목사(청년1국)

이번에 진행되는 제21차 봄 글로벌 특새는 모두가 안아 주심의 본당에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전심전력 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응 답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 서든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 과 같이 인생의 위대한 대반전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 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의교회 제21차 봄 글로벌 특새 첫째 날을 통해 충천한 생기 넘치는 은혜의 지성소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온 영가족이 집중력 있게 응집되어 기도와 말씀 찬양을 올리며 나아갈 때 폭포수와 같이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시는 응답의 새역사, 회복의 새역사, 치유의 새역사, 부흥의 새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봄 글로벌 특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의 마무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교회가 특별히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부르신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응답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민건 목사(목양6팀)

지난 주일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부터 안아주심의 본당을 향해 정돈' 하고 특새를 기다렸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첫째 날, 본당 안의 영적 밀도, 생기,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세상을 진동케(shaking) 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도록 전력투구(全力投球)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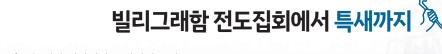


#### 김기완 목사(목양6팀)

제20+1차 봄 특별새벽부흥회는 사랑의교회에서 1차 특별새벽부흥회를 맞이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생성된 은혜의 공진은 저의 영혼을 울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분열을 파괴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부흥회에서 부어주신 영적 생기와 거룩한 패기를 밀도 높게 집약시켜 맡겨진 사역을 위해 집중하여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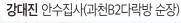






이무윤 권사(직장인상도1다락방 순장)

제가 섬겼던 탁아방 아가들이 자라나 어제 특새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저도 50년 전 여의도 빌리그래함 전도집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따라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인파였지만 질 서 있었고 특히, 쩌렁쩌렁한 김장환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 히 기억합니다. 어제 특새의 현장에 있던 어린 생명들은 훗날 특새 50주년 때 어제의 특새를 기억하며 믿음의 세대계승을 이루는 주역 으로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1973년 당시 저는 학생으로 여의도전도집회에 참 여하였습니다. 모든 버스는 마포에서 멈춰야 해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걸어 여의도 중 심까지 갔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이 뜨거운 아스 팔트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개인을 위해 간절히 기 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기억이 납니 다. 이번 6.3 상암집회에 여의도 집회를 뛰어넘는 강 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중훈 안수집사(관악B2다락방 순장)

50년 전 빌리그래함 전도집회에서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복음이, 그리고 49년 전 여의도 엑스플로 74에서 전도자로 부르심이 지금 도 생생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자훈련을 받고 직장에서 제자 및 성경공부 인도자로 세워진 것도, 아울러 사랑의교회 전폭훈련을 받고 전도자로 세워진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여겨집니 다. 특새를 통해 전도폭발 사역자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대히 감 당하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윤은희 권사(서래별님1다락방 순장)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선생님을 따라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 틈 에 겨우 한 뼘 자리를 잡고 앉아,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실까 봐 눈물 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회가 끝나 돌아 오는데 여의도 광장 하늘 위로 가득했던 흰 구름이 열리며 눈부신 빛 줄기가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지옥 아닌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한 점보 다 더 작았던 어린아이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주님께 50년이 지난 지 금 다시 예전처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품은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 해 기도하려 합니다!

# MBT) 별 기도의 지팡이 사용법 $^{>}$



- [E8]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지팡이를 높이 들자고 이야기한다.
- 명 지팡이를 혼자 들면서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들도 높이 들기를 기대한다.
- Sg 지팡이를 드는 높이는 나의 간절함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 Ng 지팡이 드는 각도에 신경쓰며, 누구보다 높이 든다.
- T열 기도의 지팡이에 담긴 믿음과 사실을 기억하며 높이 든다.
- F형 다락방 순원들이 높이 드니까 나도 함께 높이 든다.
- Jg 찬양 후렴 가사에 정확히 들기 위해 기다리다가 높이 든다.
- P형 기도의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유롭게 들고 기도한다.

#### **은혜게시판** [뉴스레터에 소개된 은혜게시판 글을 작성한 성도님께 "전적위탁 기도의 지팡이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 180. 응답받는 자녀 되게하옵소서\_ 홍재일

작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신장에 혹이 발견되어 신장암 1기를 진단받고 로봇수 술로 부분절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 혜로 조기 발견되어 항암치료 없이 신장 암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특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순장과 고등 부 교사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 268. 이미 받은 응답\_ 김지현

과거 남편은 특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특새 안내봉사를 위해 새벽 1시 에 먼저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사람이 되 었습니다. 특새에서 안내하는 남편의 모 습을 보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 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새는 부모님이 함께 참여 하시며 전참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엎드려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 292, 첫 특새! 20+1s+의 은혜\_ 주영은

남자친구와 믿음이 약한 아빠를 초대했 던 첫 특새로부터 20년이 지나 다시 새 로운 첫 특새를 맞이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빠는 훈련의 기도후원자가 되 셨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 다. 남편과 20+1 특새를 함께 드리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며가 정을 연합시키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 니다.

#### 298. 첫만남에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_ 김연광

이른 시간 새벽 2시 30분부터 시작되 는 특새 때의 교통봉사는 주일날 섬기 는 교통봉사와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 다. 새벽에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안내하 다보면 어느새 나도 은혜의 물결 속에 헤엄칩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교통 섬 김의 은혜와 함께 본당에서 받게 될 폭 포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 2023 봄 특새 출석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오르는 응답의 대장정

#### 둘째날

세상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 800003 허락하신 주의 은혜. 밀도있게 축적하자 ELONOMA S



#### **알림** [오늘의 기도주제: '위로부터 부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모든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 1. 강단초대

\*오늘: 남 · 여 · 여직장인 순장반 \*내일: 권사회

#### 2. 강사소개

\*오늘: 케빈 브라운 박사 (애즈버리대 총장)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내일: **로버트 노리스 목사 (세계개혁주의연합회 이사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9)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애즈버리 부흥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5:6)

"성령의 신음" (에베소서 6:18)

"끈질긴 통곡기도의 능력" (사무엘상 1:10~20)

#### 3.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 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 30분까지
- 국제주차장(구 더바인웨딩) 월-금: 3시~7시까지, 토: 5시 30분~9시 30분까지
- 서초고등학교 월-금: 4시~6시, 토: 이용불가. (\*모든 주차장은 주차 가능시간 이후 출차시 유료입니다.)
- 버스 교회 출발시간은 6시 25분입니다.
- 4. 아름다운 땅 조식 오픈 (6:30~8:30, 오늘의 메뉴 : 순두부, 감자채볶음, 김치)

#### 5.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200번 작성자께는 오늘 후집회 이후 **"특새 에디션 리유저블 텀블러"** 를 드립니다. (수령장소: 남 1층 로비)

